

市 “AI·모빌리티 집중”… 道 “지역소멸 선제 대응”

시·도 내년도 주요 사업

市, 공공배달앱 등 정책자금 지원 AI사관학교 추진·통합돌봄 확대 道, 출생기본수당·만원주택 강화 그린에너지 신산업·섬박람회 주력

광주시의 내년 본예산안은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했다.

●광주시

광주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위한 12종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이에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권 금융비용지원 사업 △공공배달앱 지원을 진행한다.

또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지원사업에도 투자한다.

광주 대표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양성을 위해 AI창업캠프·AI사관학교·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EV배터리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의 예산도 편성했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별 돌봄을 넘어 관

광주시·전남도 내년도 주요 사업예산

광주시	
공공배달앱 지원	8억3천만원
청년월세지원 및 활동지원	242억원
AI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197억원
미래모빌리티 선점	46억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75억원
대·자·보 도시	72억6천만원
책 읽는 광주	138억원
전남도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82억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158억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

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한다. 시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국 운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의 투자를 강화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출생기정착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의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또 광주전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광주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을 2025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전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

전남도는 내년도 분야별 중점 사업 중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예산으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조성에는 △전

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지역행사 및 축제로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경우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도비를 당초 19억원에서 147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에는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계층 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탈북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사업 4억원 등을 반영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박희율 “광주시 전략추진단 조직 폐지해야”

“반복적 사무조정, 조직 혼선”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지적

민선8기 광주시의 주요 공약과 현안 정책의 총괄 조정을 위해 신설한 광주전략추진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폐

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율 광주시의원(남구3·더불어민주당·사진)은 11일 열린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설립 목적과 현재 운영의 괴리가 있고 반복적인 사무 조정으로 인한 조직 혼선이 있다”



며 조직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략추진단은 민선8기 광주시정 슬로건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이다.

2023년 1월 사무 조정에서 시정혁신이

삭제된 이후, 2023년 7월에는 협업과 적극행정이, 올해 1월에는 3대 가치수당과 지속가능발전이 각각 삭제됐다.

결국 올해 7월에는 핵심 의제 논의와 전략수립마저 사라지면서 현재 전략추진단은 융복합 과제와 공공기관 혁신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행정부시장 직속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요 공약과 현안 과제의 총괄

조정,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설립 초기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더이상 광주의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광주전략추진단의 실질적 존립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만약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위한 논의를 의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



고영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양임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귀성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이숙희 의원
(안전도시위원장)



최기영 의원



김영순 의원



주순일 의원



김건안 의원

북구의회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김형수 의원



기대서 의원



전미용 의원



강성훈 의원



정상용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정달성 의원



정재성 의원



신정훈 의원